



대전의 한 컨벤션 홀에서 400여 불자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 쉬면서 자기공정을 암시하는 지원 스님의 내레이션을 듣고 있다.



포교원은 조계종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와 12월 5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마곡사 권역인 대전, 세종, 충남권 '국민행복 힐링투어'를 진행했다. 지원 스님·마가 스님 법문에 환하게 웃으며 사부대중들이 즐거워 하고있다.

조계종 포교원, '국민행복 힐링투어' 시작

“나부터 행복해져야 이웃과 동체대비”

“우리의 마음과 생명은 잘 쓰는 만큼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고 행하면 더 힘이 웅대해 집니다. 믿지 않고 두려워하면 생명이 줄어들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명을 무한이라고 일러주세요. 자신을 유한이라고 일러주는 자는 무한의 삶에서 유한 밖에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무한한 빛과 힘을 믿고 행할 때 나의 생명과 부처님의 본원력이 만나 이루기 힘든 뜻을 이루고 만나기 힘든 진정한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대전의 한 컨벤션 홀에서 400여 불자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 쉬면서 자기공정을 암시하는 내레이션을 듣고 있다. 내레이션을 맡은 이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이날 전국의 하늘은 미세먼지 공습으로 온통 희뿌옇게 변했지만, 대전과 세종 등 충남지역에서 모인 불자들은 지원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기운을 맑혔다.

지난 11월 29일 전국 15개를 선정, 해당 지역 교구 본사와 협력해 내년부터 포교 취약 지역을 찾아 '국민행복 힐링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힌 조계종 포교원이 그 첫 번째 투어로 대전을 택했다.

포교원은 조계종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와 12월 5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마곡사 권역인 대전, 세종, 충남권 '국민행복 힐링투어'를 진행했다.

'국민행복 힐링투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포교 사업은 포교 취약 지역 신도단체와 기관장, CEO 등 지역 리더그룹을 초청해 1시간 동안 명상 이론 강의와 실천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동학사 주지 유곡 스님, 백제불교회관 장곡 스님, 대전사암연합회 회장 대연 스님, 청림회 회장 성현 스님, 박정현 충남 정무부지사, 변평성 세종시 정무부시장, 대전

경찰청장 정용선 등을 비롯해 공무원불자회, 포교사단, 포교신도단체, 백제불교회관, 마곡사신도회, 사찰신도회에서 온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행사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인사말과 함께, 지원 스님의 '사무량심 명상법', 소프라노 정행 스님의 힐링음악, 동국대 교법사 마가 스님의 '행복 명상'으로 진행됐다.

원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전 충청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다. 세상은 소통을 통해서 밝아질 수 있다. 그 소통의 중심에 대전 충청민들이 있다”며 “한 해를

첫 번째 지역 대전·충남지역 선택
지원스님 '사무량심', 마가스님 '행복명상'
1시간 30분 동안 청중 마음에 행복채워
"2014년 1월부터 10여 지역 투어할 것"

마감하면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귀빈들과 불교계 임원단과의 교류는 뜻깊은 소통의 일환이다. 종교의 대 사회적 역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불교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원 스님의 힐링 법문이 펼쳐졌다. 지원 스님은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주제로 법문을 하고, 스트레스·비만 해소와 에너지 생성 건강법을 위한 3분 명상을 불자들에게 소개했다.

지원 스님은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믿으십니까? 행복이란 나의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며 지혜는 4가지 한량없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강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사무량심'을 주제로 법문했다.



마가 스님이 꽃을 들여보이자 청중은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염화미소처럼 환하게 웃음꽃을 피웠다.



소프라노 정행 스님은 직접 피아노를 치며 '영원한 우리의 사랑' 등 2곡을 불렀다.

조했다.

스님은 “중생과 동체대비가 되는 큰 마음에서 행해지는 행복을 나누려면 우선 나부터 행복해야 한다. 그 조건은 자존(自尊)이라며 “자신을 지극히 존중해 높이 받들고, 지극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의 존재감 '에고'가 아니라, 스스로 갖춘 인격체인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것과 똑같이 타인을 존중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 스님은 사무량심인 자(慈)·비(悲)·희(喜)·사(捨)에 대해 설명했다.

“자비회사 사무량심은 곧 행복을 나누자는 말이며 모두가 같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진다는 의미이니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너의 기쁨을 나의 행복인양 함께 해주고 무한한 보시로 나를 비우고 지복으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수행이라는 방편을 사용합니다. 이는 곧 신구의 목과 입, 뜻을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지 청정한 법의 수행이 각 사찰에서 시행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이어서 지원 스님은 비만해소, 에너지 생성 및 건강을 위한 호흡명상 법을 선보였다. 스님은 “호흡에는 원칙이 있다. 내 쉬는 숨은 들이쉬는 숨보다 최소한 같거나 약 2배 정도는 길어야 한다. 숨을 가득 들이쉬 다음에 호흡을 멈추는 것은 관찰지만 숨을 모두 내쉬 상태에서 멈추면 위험하다”며 “숨은 가늘고 고르게, 길게 해야 다운에이징뿐 아니라 오장육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치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청하던 사부대중은 지원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소프라노 정행 스님의 힐링 음악도 이어졌다. 정행 스님은 직접 피아노를 치며 '영원한 우리의 사랑' 등 2곡을 불렀다.

2곡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자비명상 대표이자 한국마음치유협회장,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마가 스님이 강단에 올랐다. 스님이 손수건을 펼쳐 보인 후 접은 뒤 다시 펼치면서 꽃을 들여보였다. 사부대중은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염화미소처럼 환하게 웃음꽃을 피웠다. 마가 스님은 “꽃을 보니 좋으시죠”라고 물었고 대중은 “네”라고 답했다. 스님은 미소 지었다. “여러분은 꽃보다 더 아름답게 미소 지으세요.”

종소리가 침묵을 불렀다.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마가 스님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살피야 한다”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마음의 노예이고 바로 보는 사람이 마음의 주인”이라고 했다.

마가 스님은 간단한 게임을 소개하며 대중의 굳어 있는 마음을 풀게 했다. 스님은 “자신이 자리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명품인생이 된다. 먼저 웃고 자비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꽃을 들여보였다.

“내가 먼저 웃어야 우리 집에 웃음 꽃이 핀다. 내가 먼저 웃어야 너와 나 사이에 꽃이 핀다. 내 마음 속에 꽃이 피고 먼저 웃을 때 나는 행복해진다.”

이날 한 시간 넘게 진행된 힐링투어는 사부대중의 마음에 행복을 채우기에 충분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온 이기명(46·여) 씨는 “불자이지만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회를 접하기 어려웠다. 오늘 참석해 사무량심 법문을 듣고 행복명상을 따라하면서 많이 행복했다.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2014년에는 전국투어로 확장해 전국민이 명상을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포교의 장을 발돋움 시킬 계획이다.

포교원 관계자는 “힐링투어는 지역 교구본사, 불교대학, 포교사단, 전법단 및 포교 신도단체 등 포교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포교를 활성화할 목적”이라며 “1월부터 인천 울산 충청 수원 전라 강원 영주 대구·경주, 제주·충주·원주, 부산·서울·직할교구 등 해당 지역 교구본사와 협의의 아래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이어나 기자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화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인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